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 도덕 이론을 응용하여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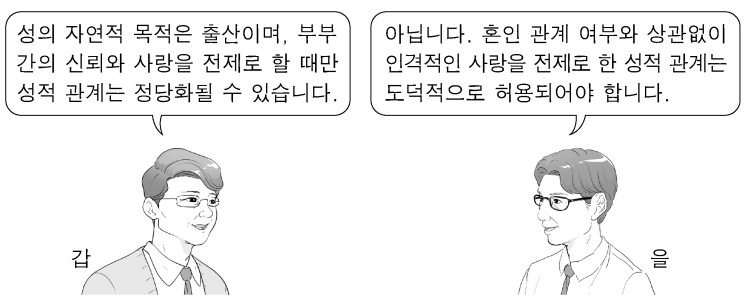
① 도덕 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한다
②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③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⑤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간과한다

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사례>
>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A는 평소 남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런데 A는 최근 겪은 슬픈 일로 인해 봉사 활동에 계속 참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①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도록 행위해야 합니다.
②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위해야 합니다.
③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위해야 합니다.
④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합니다.
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합니다.

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 :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② 갑 :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③ 을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모두 비도덕적이다.
④ 을 : 상호 동의만 전제되면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⑤ 갑, 을 :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4.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소인은 한가롭게 지낼 때는 거침없이 불선(不善)을 행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불선함을 가리고 선함을 드러낸다.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나)	몸과 마음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마음 가운데 온갖 이치[理]가 갖추어져 있으니, 만약 한 가지 이치라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에 흠과 모자람이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서는 [㉠]을/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①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② 항상 동기간(同氣間)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인(仁)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④ 도덕적 수행을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에서 시작된다.
⑤ 상호 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5.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신문 ○○○○년 ○○월 ○○일
>
> **칼 럼**
>
> 명품 소비는 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의 명품 소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일부 계층의 명품 소비 성향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명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모조품을 찾으면서까지 과시욕을 충족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비 성향은 '남들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욕구와 연관되어 명품 소비를 하나의 유행으로 만든다. 그 결과, 명품 구매를 통해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일시적으로 충족되지만, 자신의 개성은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명품 소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 …(후략).

<보 기>

ㄱ. 동조 욕구를 절제하고 주체적 소비를 해야 한다.
ㄴ.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ㄷ. 모방 소비를 지양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야 한다.
ㄹ. 특정 계층에 국한된 과시 소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①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③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커진다.
④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⑤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
> 을: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ㄴ. 갑: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ㄷ. 을: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禮法)의 핵심이다. 농부, 공인, 상인은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도(道)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도 못해도 이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다.
> 을: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① 갑: 예(禮)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갑: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③ 을: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④ 을: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恒産)에 앞서 항심(恒心)을 지녀야 한다.
⑤ 갑, 을: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의사는 질병에 관한 전문 지식을 지니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의 선을 위해 간섭하듯이, 의사도 환자의 선을 위해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 을: 물론 전문 지식은 차이가 있고 의학적인 온정적 간섭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갖기 때문에, 그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갑: 환자 역시 인간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치료에 있어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질병 치료이니까요.
> 을: 질병 치료가 의사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건강 이외에도 다른 여러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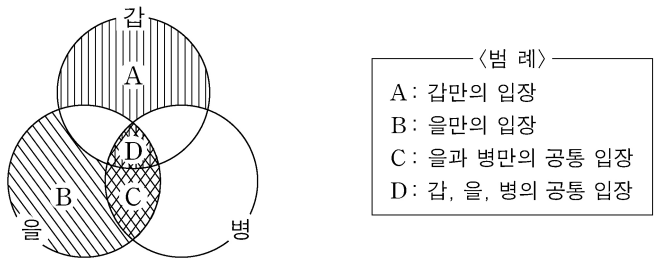
① 질병 치료가 의사의 본질적 사명인가?
② 의사의 온정적 간섭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③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④ 의사와 환자는 의학적 전문 지식에 있어서 비대칭적인가?
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가?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대지 윤리는 생태 윤리를 반영한다. 생태 윤리는 각 개인이 대지의 건강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 을: 삶의 주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는 무조건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이지 중간은 없다.
> 병: 생명체가 선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을 실현하려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다.

(나)



<보 기>

ㄱ. A: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
ㄴ. B: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ㄷ. C: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ㄹ. D: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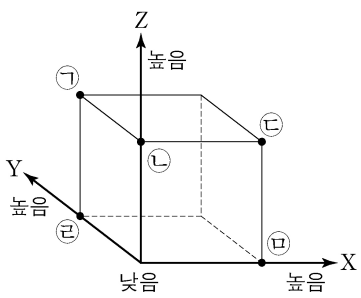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보다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이질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이산가족의 만남, 북한 주민의 보편적 삶의 권리 실현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

(나) 통일 문제를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인권 신장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분단에 따른 각종 불안 요인을 극복하여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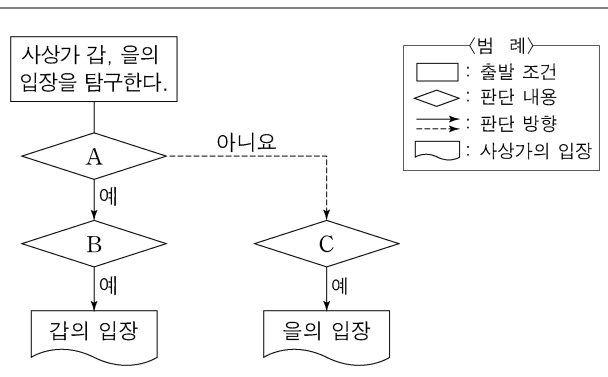
• X: 문화적 통합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 Y: 경제적 실리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 Z: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고통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통을 결핍하고 있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이러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을: 절대 빈곤은 나쁘다. 어떤 절대 빈곤이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 방지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절대 빈곤을 막아야만 한다.

(나)



<보 기>
ㄱ. A: 원조는 국가 간 복지 수준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가?
ㄴ. B: 원조는 국가 간에 자원을 재분배하는 윤리적 의무인가?
ㄷ. C: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은 원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ㄹ. C: 원조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이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다.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자아에서 벗어나, 여러 자아를 실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다중 정체성의 위험에 유의한다면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이버 자아는 현실 자아의 반영에 불과하다.
② 사이버 자아의 익명성은 위험하기에 실명화해야 한다.
③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 도덕적 책임에 민감하다.
④ 사이버 공간은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⑤ 사이버 공간의 다중 자아를 금지해 정체성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詩)란 사람의 마음이 세상 사물이나 풍속과 감응하여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대상에는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으니,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 우리는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여,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 기>
ㄱ. 시는 선악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ㄴ. 시를 감상할 때에는 윤리적 성찰을 겸해야 한다.
ㄷ. 시는 그 사회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다.
ㄹ. 올바르지 못한 시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전쟁,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빈곤, 차별과 같은 간접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을: 전쟁은 항상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모든 전쟁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한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전쟁의 정당성은 개시, 수행, 종식 등의 전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① 갑: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한다.
② 갑: 진정한 평화는 인간 안보가 확장된 국가 안보를 통해 완성된다.
③ 을: 빼앗긴 영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④ 을: 불간섭 원칙에 따라 타국의 인권 문제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평화를 위한 정의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 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ㄴ. 기업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는가?
ㄷ. 기업은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ㄹ.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을 :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하였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 또한 정의롭다.

① 갑 :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보상되어야 한다.
② 갑 :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이다.
③ 을 :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을 :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⑤ 갑, 을 :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 흩어지는 자연의 과정이다. 생명을 얻음은 때를 만나서 태어난 것이요, 생명을 잃음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때에 맡겨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운명에 순응한다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올 수 없으니,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풀어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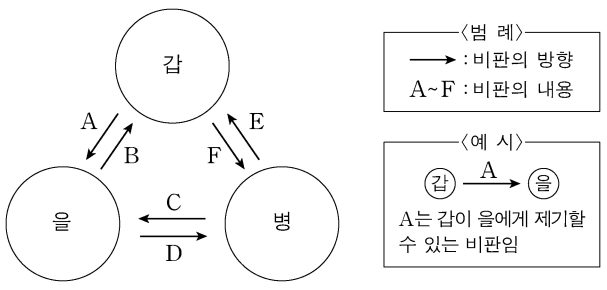
①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고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도(道)를 따라야 한다.
③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업(善業)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④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아 인의(仁義)의 삶에 힘써야 한다.
⑤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 한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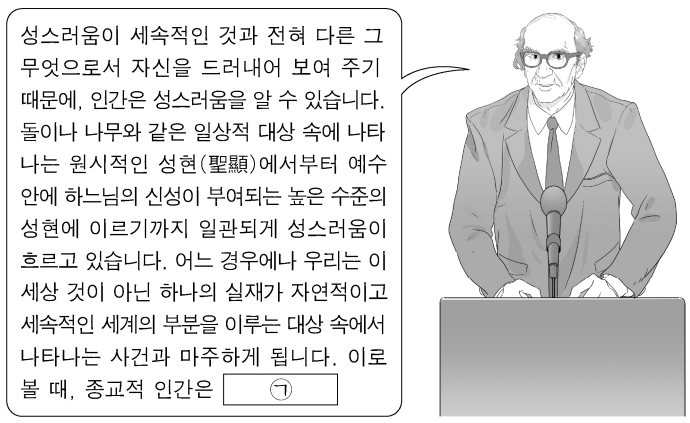
> 갑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으로,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길이다.
> 을 : 국가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에 있고, 사형 제도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의 신체와 능력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있다.
> 병 : 형벌은 사회 계약에 기초하며 그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에 있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형벌은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나)



① A, C :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② B : 살인자도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③ D : 형벌적 정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④ E :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라 응보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⑤ F : 형벌은 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20. 그림은 어느 사상가의 강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②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 세속의 세계 안에서 성현을 체험하며 그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④ 세속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⑤ 세속의 세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 * 확인 사항
>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